

The Old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 Education for Shalom - Thoughts on UNESCO 2050 -

Mikyoung Seo
(KCUE)

Abstract

Purpose of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education for biblical Shalom for the future of education in relation to UNESCO 2050.

Research content and method: The education for Shalom is about experiencing Shalom in fellowship with God. Moreover, it expands that shalom into relationships with self, neighbors, the earth, and technology, and then helps achieving balance between Shalom and those mentioned above. In order to provide education for Shalom, this study presented five relational dimensions of experiencing Shalom. First, the joy of serving God and neighbors in a proper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is most important. Second, it is the joy of building a right community and living in it through harmonious relationships with neighbors. Third, it is the joy of living in a harmonious relationship with nature. Fourth, it is the joy of being respected for human rights that are dignified as the image of God and living while enjoying rights. Fifth, it is the joy of enjoying fair use and benefits from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out being alienated, excluded and treated unfairly, or receiving disadvantages. Based on that, a model of education for Shalom has been developed.

Conclusions and Suggestions: The educational model for Shalom forms view of values, knowledge, and human nature through the Bible. It consists of learning strategies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the form of knowledge and the five relational dimensions. This model has a structure that carries out education for Shalom while interacting with each other.

Key Words

shalom, UNESCO 2050, education for shalom, view of human nature, values, view of knowledge, learning strategies

기독교교육의 오래된 미래 : 살롬을 위한 교육 - UNESCO 교육의 미래 2050에 대한 소고 -

서미경*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UNESCO의 교육의 미래 2050'에 대한 소고로서 전지구적인 위기 상황에서 교육의 미래를 위해 성경적인 살롬을 위한 교육을 주장하였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살롬을 위한 교육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롬을 경험하고 그 살롬을 우리 자신과 우리 서로와의 관계, 지구와의 관계, 기술과의 관계 속으로 확장되어 상호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살롬을 위한 교육을 위해 살롬을 경험하는 다섯 가지 관계적 차원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기쁨이다. 둘째, 우리 서로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바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기쁨이다. 셋째,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기쁨이다. 넷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한 인권을 존중받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이다. 다섯째, 기술혁신에서 소외·배제되거나 불이익과 불평등을 받지 않고, 공평한 사용과 혜택을 누리는 기쁨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살롬을 위한 교육의 모형을 개발하였다.

결론 및 제언 : 살롬을 위한 교육모형은 성경을 통해 가치관, 지식관, 인간관을 형성하고, 이를 반영하는 지식의 형식과 다섯 가지 관계적 차원의 균형 유지를 위한 학습전략들로 구성된다. 이 모형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살롬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구조를 가진다.

〈 주제어 〉

살롬, UNESCO 2050, 살롬을 위한 교육, 교육과 인간관, 교육과 가치관, 교육과 지식관, 학습전략

I. 들어가는 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전지구적인 문제가 나의 생존과 삶의 문제라는 것을 체감하였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차별, 빈곤, 기아,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이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나와 너 그리고 인류의 위기이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조미영, 2020). 이러한 위기극복과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이 요청되는 가운데 미래를 위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교육 문제는 근본적인 대안 없이 점점 깊어지더니 이제 학교 폭력을 넘어서 교사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국회에서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교사의 교육 권한과 관련된 법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근본적인 교육에 대한 대안 없이 법만 다루게 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교육 현장의 깊은 문제들이 겉으로 드러난 지금이 교육 개혁과 회복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장한섭, 2023.11.08). 교육에 대한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전지구촌의 문제이다. 전지구적인 위기의 상황에 처한 현시점에서 세계적으로 교육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과 기대가 산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021년 11월에 UNESCO는 '교육의 목적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교육의 미래 2050'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네스코 교육 보고서는 유네스코 국제 미래교육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s of Education)에서 발표한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이다. 2018년 11월에 발표한 OECD '교육 2030' 보고서에서는 '교육의 목표를 더 확대'할 것을 강조하며 급변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고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도전을 직면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y)핵심역량을 주제로 하여, 변혁적 역량과 주체성을 가진 협력적 행위를 강조했다. 2018년에 OECD는 '교육의 목표를 더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면, 그 후 3년이라는 흐름을 통해서 UNESCO는 '교육의 목적을 다시 정의'할 것을 강조한다(유네스코, 2022). 3년의 간격을 둔 보고서의 발표에서 강조점의 변화는 우리가 그 기간 동안의 변화의 흐름을 전지구적으로 직접 체험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우리 인류는 전지구적으로 코로나 19라는 위기와 그로 인한 국가, 사회, 경제, 정치, 교육 등에서 불평등 문제를 동시에 체험했고 여전히 기후변화 등 시급한 위기에 놓여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스위스에서 열린 제58차 총회에서 6차 평가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21~2040년 사이에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것은 이전에 예측되었던 2030~2052년보다 훨씬 앞당겨진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단기적 정책 대응의 시급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

하고 있다. 앞으로 10년간의 선택이 지금 현재는 물론이고 수천 년 뒤 미래 인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이미션, 2023.03.20). 이러한 이유로 교육은 미래 인류의 생존을 위해 환경 위기와 불평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동안 교육이 재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위기가 초래되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 방안도 교육이라는 반증이 된다.

그렇다면 인류 사회와 생태계에 이로워야 할 교육은 어떤 변화를 겪은 것인가? 교육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사회, 정치, 기술, 문화 등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다. 산업사회의 발달은 인간의 내적인 교육의 가치보다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교육의 외적인 가치 측면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은 인간의 내적인 가치와 외적인 가치가 동등하게 조화를 이루며 발전된 것이 아니라, 교육의 외적인 가치에 치중하게 되면서 인류사회와 전지구적으로 심각한 불균형을 조성하게 만들었다. 인간과 인간간의 사회관계는 이권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계약적인 경향을 보이면서 우리 사회는 진정한 인간애와 인류애를 누리는 대신에 개인주의가 만연한 메마른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으로 정치, 사회, 교육, 경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동인이 되었고, 부메랑처럼 돌아와 우리 서로의 개인적인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대학입시는 모든 다양한 인간적인 가치와 의미 있는 경험들로부터 학습자들을 배제시켰다. 개인적인 미래의 가치있는 삶과 인류를 위한 비전과는 전혀 무관한 편협한 지식을 주입시키고 있다(강문규, 2018). 이러한 교육은 치열한 경쟁을 조장하여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할 뿐 아니라, 전인적인 교육에서 온전히 벗어나 지식교육만을 강조하므로 단절과 소외, 불평등과 고통을 경험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UNESCO 교육의 미래 2050' 보고서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육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은 교육의 처음으로 돌아가 그 근원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며, 근원으로부터 미래의 교육까지 관통하는 것으로 오래된 미래에 해당한다. 그것은 성경에서 찾은 살롬을 위한 교육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UNESCO의 교육의 미래 2050'에 대한 소고로서 전지구적인 위기 상황에서 교육의 미래를 위해 성경적인 살롬을 위한 교육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인류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인류의 처음 시작으로 돌아가 그 곳에서부터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살롬(Shalom, **שלום**)이란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 누렸던 에덴동산에서의 하나님과 아담(인류)과 피조세계(자연)와의 온전한 화평과 기쁨의 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살롬은 관계 안에서의 평화, 평강, 정의, 질서, 조화,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살롬의 교육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교육의 본질이며 인류와 전지구적 위기 앞에서 희망이 될 수 있다.

II. UNESCO 교육의 미래 2050 개요

넬슨 만델라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교육”이라고 했다. 현재 전지구적으로 당면한 인류의 과제는 기후위기와 계층 간의 격차, 팬데믹 등이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인류의 과제에 대처할 힘을 미래 세대는 갖추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의제를 가지고 접근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흘레-워크 주드(HESahle-Work Zewde, 국제미래교육위원회의 대표,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대통령)는 다음과 같이 서문에서 발간 취지와 의미 그리고 보고서의 성격을 설명했다(유네스코, 2022).

우리 지구의 미래는 지역적이고 민주적으로 그려져야 합니다. …… 인류는 단 하나의 행성을 …… 자원을 잘 공유하거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여러 지역 간에는 용납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교육은 이러한 뿌리 깊은 불평등을 해결하는 핵심 경로 …… 코로나19로 생활의 혼란을 겪은 학생과 교사들,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웰빙과 성장, 학습의 지속 …… 노력을 기울인 모든 분들께 이 보고서를 바칩니다.

서론을 통해서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 공적 대화와 집단행동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것과 그것이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평화롭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촉매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먼저 과거의 자원고갈과 불평등에 대한 잘못을 성찰하고, 미래를 위해 현재의 교육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과 교육을 위한 사회적 계약 촉진을 추구하고 있다. UNESCO 교육의 미래 2050 보고서는 다음 <표 1>과 같이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UNESCO 교육의 미래 2050 목차

서론
1부: 과거의 약속과 불확실한 미래 사이
1장 보다 평등한 교육의 미래를 향하여 / 2장 혼란과 새로운 전환
2부: 교육을 다시 새롭게 하기
3장 협력과 연대의 교육학 / 4장 교육과정과 진화하는 지식 공동체 /
5장 교사의 변혁적 노동 / 6장 학교의 지속과 변화 /
7장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교육
3부: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 촉진
8장 연구와 혁신에 대한 요청 / 9장 글로벌 연대와 국제 협력에 대한 요청
에필로그 그리고 계속

이 보고서가 교육의 미래를 전망하는 주된 목적은 현재를 다르게 규정하고, 앞으로의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에 주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대안적인 미래를 탐색하는 것은 윤리나 형평성과 정의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어떤 미래가 바람직한 것이며, 그것은 누구를 위한 미래가 되는가? 따라서 우리가 함께하는 미래 교육을 위해 새로운 사회계약을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보고서에서 본 연구가 다룰 부분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인류의 생존과 인권, 그리고 살아있는 지구가 위협에 처해 있다

인간 각자의 존엄성과 기본권, 지구의 건강, 이 모든 것이 위협에 처해 있다. 이 위험한 경로를 바꾸기 위해 대안적 미래는 서로와의 관계, 살아있는 지구와의 관계, 그리고 기술과의 관계에서 시급히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인간 서로의 상호의존성, 인간 너머의 지구의 세계 그리고 기술 속에서 인류가 차지하는 장소와 역할에 대해 다시 배워야 한다. 인류의 증척되는 위기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확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지구 자원 남용, 민주주의의 후퇴, 혼란스러운 기술 자동화와 폭력 등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디지털 전환은 그 이전과는 다른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정보 접근성을 높이며 교육을 위한 새롭고 유망한 길을 열어주고 있지만 기술은 권력과 통제에 대한 문제도 발생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 인류의 번영을 돕고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중되며, 미래의 지적이며 창조적인 자유를 위협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유네스코, 2022).

2.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

교육은 인류 사회의 혁신과 변혁의 근간이 된다. 교육의 힘은 우리를 세상과 타자와 연결하고, 거주하는 공간을 넘어 움직이게 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게 해 주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적인 열망에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못 미치고 있다. 현시대는 세계적으로 교육의 접근성이 높아졌지만 각종 배제가 중복되면서 수억 명의 아동, 청소년, 성인이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족, 언어, 성별, 문화, 삶의 방식에 따른 차별이 제도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다. 20세기의 공교육은 국가의 시민권과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의 형태를 취했다. 하지만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위협을 감안할 때, 공동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시급히 재구상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교육, 지식, 학습에 대한 기존의 사고방식이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것을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유네스코, 2022).

3. 교육 목적의 재정립

교육 시스템은 장기적 지속가능성보다는 단기적인 특권과 편리함을 더 중요시 여기는 잘못된 믿음을 가져왔다. 또한 개인의 성공과 국가 경쟁력 그리고 경제 발전의 가치를 강조했기에 연대와 이해, 인류의 상호의존성 그리고 우리 서로와 지구에 대한 보살핌을 손상시켰다. 교육은 과거의 정의롭지 못했던 것을 시정하는 동시에 환경·기술·사회적 변화에 대비하도록 도와야 한다. 유네스코 2050 보고서의 부제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다. 교육이 공적 목적을 가진 하나의 공유된 비전으로 존재한다는 ‘사회계약’을 표방한다(Desjardins, Torres, Wiksten, 2020, 11~14), 교육을 위한 사회계약은 두 가지 원칙 (1) 교육 받은 권리이며 (2) 공공의 사회적 노력(public societal endeavour)으로 공동재(a common good)로서의 교육에 대한 책임의식이다. 공동재는 국가가 제공하는 공교육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서 교육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사교육과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생겨난 개념이다. 공교육에 민간의 자원과 영리 및 비영리 기관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교육을 경영의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육이 사유재(private good) 또는 소비재(consumer good)로 변해가게 되었다. 그래서 교육과 지식이 불평등, 소외 등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교육과 지식을 전지구적 공동재라 말한 것이다(유네스코, 2022). 현재의 국제적인 교육 담론은 ‘학습’을 중시되고, 교육의 결과에 치중함으로써 학습 ‘과정’을 소홀히 여기며, 학습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식과 학습 성취도에만 관심을 갖는다. 또한 학습을 개인적인 기술 습득을 위한 과정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함께 누린다는 교육의 근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유네스코, 2016, 74-85).

4. 함께 그려보는 미래 교육을 위해

각 영역의 과제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교육이 변혁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동시에 교육이 인본주의(humanism)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던져준다. 그리고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2050’는 교육적인 주류 개발 모델의 한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교육을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미 창조’를 강조한 것은 진전된 인식의 표현이다(진보교육연구소 교육과정연구모임, 2022).

오늘날의 교육적 담론에서 가장 지배적인 교육을 훼손하는 원인은 소비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경쟁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유사한 상황으로 입시위주의 치열한 경쟁과 서비스화된 교육은 소비자의 구미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가 만연하다. 교육에서 경쟁은 대학의 서열과 직업적 우위에 따른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것으로 결국 ‘교육의 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트로피 사냥, 자기 홍보, 이기심의

발현 등은 교육을 통한 공동선을 추구하는 기능을 마비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Richard Desjardins, 2020, 8-9. 41). 또한 ‘유네스코 미래교육 2050’은 인간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의 생존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말한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 인본주의 자체를 재구성해야할 필요를 인식한다. 유네스코 배경 문서를 저술한 커먼 리서치 그룹(Common Worlds Research)은 “배타적인 인간을 넘어 인본주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한다(Common Worlds Research Collective, 2020, 3-11).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켜 인식했던 데카르트적인 이원론을 폐기하고, 비인간적 존재(non-human beings)와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Ⅲ. 현대 교육 위기의 근원과 기독교교육의 비판적 성찰

1. 현대 교육 위기의 근원은 무엇인가

UNESCO 교육의 미래 2050 보고서는 교육이 인류 사회의 혁신과 변혁의 근간이 된다고 한다. 교육의 힘은 우리를 세상과 타자와 연결하고, 거주하는 공간을 넘어 움직이게 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게 해 주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적인 열망에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못 미치고 있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위협 앞에서 공동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교육을 시급하게 재구성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교육, 지식, 학습에 대한 기존의 사고방식이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것에서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유네스코 2022). 따라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기 위해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교육을 가로막고 있는 기존의 사고방식 형성을 살펴보면서 현대 교육의 문제와 위기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21세기는 급속도로 교육이 학교교육의 형태로 보편화되고 확산되었다. 그것은 국가의 형성과 경제적인 개발에서 교육이 중심과제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모색된 공교육체제로서의 학교교육은 그 범위와 구조에 있어서 근세 이전의 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관리형식과 교수기법을 가지고 있다(정영은, 2016). 이러한 공교육 체제는 개인의 성공과 국가 경쟁력 그리고 경제 발전의 가치를 강조했다기에 연대와 이해, 인류의 상호의존성 그리고 우리 서로와 지구에 대한 보살핌을 손상시켰다(유네스코, 2022). 교육을 근간으로 국민 개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을 모색한 21세기 교육의 발전에는 18세기에 출현한 근대 계몽주의(enlightenment)가 자리하고 있다. 사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학교교육의 구조와 교육과정의 정립은 계몽주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계몽주의적

답론에 따른 학교교육은 합리적 이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기계적이며 도구적인 이성을 갖춘 주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근대 계몽주의 결과물인 학교교육과 교육과정은 현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학교의 기계적이고 도구적이며 획일적인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과 비성찰적인 학교교육 환경은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유연하게 통합적인 정체성을 형성시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전현곤, 2009). 계몽주의는 인간의 지성을 계몽하자는 것으로 인간의 이성적 훈육 가능성을 신뢰한다. 따라서 계몽주의는 교육을 통해 개개인을 윤리적인 주체로 완성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발전을 이룬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근대로부터 현대까지 교육은 계몽의 발판으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계몽은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되었다(정영은, 2016). 그리고 계몽주의 산물인 지식관은 학문과 교육의 지배적인 담론이 되었다. 이 지식관은 지식을 사실, 개념, 기술들에 대한 객관적인 실체로 보는 것이며, 지식을 많이 소유 할수록 삶에서 행복해 질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된다고 믿었다(Brummelen, 2002, 94).

파커 파머(P. J. Palmer)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우리는 세계를 분석과 조직의 대상으로 보고, 세계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삶의 방식을 배운다고 말한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경제, 환경, 범죄, 오염, 도덕, 핵전쟁, 에너지 등의 문제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 획득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 만큼은 세계적 재난 가운데서도 안정하고 온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파머는 지식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자문해 볼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지식이 인간과 짐승을 구별 짓는다고 했을 때, 그 지식이 인간의 세계를 자연세계보다 더 야만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따라서 지식의 목적뿐 아니라 그 기원에 대한 파악이 중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식을 중립적인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실체로 가정했기 때문에 지식의 기원에 대한 문제를 무시해 왔다. 사실은 변형시킬 수 없고, 지식 자체는 열정과 목적이 없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식에서 사실이라는 실체를 윤리나 도덕적 규범으로 둘러싸서 지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열정이나 목적을 제어한다고 생각해 왔다(Palmer, 2008, 45-52). 이것이 학교교육이 채택한 전략이었다. 이러한 전략은 현대의 전지구적인 위기와 혼란스러운 상황을 조장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교육을 가로막고 있는 기존의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근대 지식관의 형성기에 아서 클라우(A. H. Clough, 1819-1861)는 “은총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식은 시장에서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신앙과 가치를 지식으로부터 분리시켰다(Brummelen, 2002, 94). 아서는 지식이 객관적인 사실의 실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식은 인간 영혼 내부의 열정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신앙과 삶의 기준과 방향을 설정해 주는 가치와 분리될 수 없다. 지식은 우리 영혼 안에서 기원하는 지점에서 특정한 경로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식에는 호

기심과 지배욕이라는 두 가지 원천이 있다(Palmer, 2008, 54). 호기심은 순수 이론 지식과 같은 지식 자체가 목적이며, 지배욕은 응용과학과 같은 실용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식이다. 호기심은 도덕과 무관한 열정으로 알고자 하는 욕구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거부하며 대상을 죽이기도 한다. 지배욕은 도덕과 무관하고 부패하기 쉬워서 위험한 사람들의 손에 살인적인 권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호기심과 지배욕이 지식의 근원과 동기라면 죽음으로 이끄는 지식을 낳을 수 있다. 이것은 현대의 인간성 상실과 지구적인 위기를 연상케 한다.

성경적 지식관에서 지식은 객관적인 실체가 될 수 없다. 신앙은 그 자체로 지식이며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된다. 성경은 지식의 근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참된 지식은 헌신하는 행위, 곧 사랑을 말한다(Brummelen, 2002, 94). 사랑을 근원으로 하는 지식의 목표는 깨어지고 상처받은 자아와 세계의 재연합과 재구축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동기로 하는 지식이 추구하는 것은 호기심과 지배욕을 근원으로 하는 지식의 행태 - 창조 세계의 착취와 조작 - 가 아니라, 자아와 세계와의 화해이다. 여기서 지식 교육과 앎의 행위는 사랑의 행위이며, 타자의 실재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포용하고, 타자로 하여금 자신의 실재 속으로 들어와서 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지식은 창조의 모든 피조세계 즉, 인류와 비인간존재들을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유대로 다시 엮어주는 방법이다(Palmer, 2008, 55).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배운다는 의미는 그 지식의 기원이 되는 사랑을 배우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는 욕구의 가장 깊은 원천이 세계가 처음 창조되었던 당시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살롬이 있는 유기적 공동체를 재창조하려는 열정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교육을 가로막고 있는 사고방식의 근원은 지식을 추구하는 욕구에 있었다. 따라서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는 목적을 전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식을 추구하는 목적이 호기심이나 지배욕에서 기원하여 세계를 조작하거나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발원하여 자아와 세계의 재연합과 재구축에 두는 것이다. 사랑에서 발원하는 지식을 추구할 때, 교육은 전지구의 생명체를 하나의 공동체의 유대로 묶어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사랑에서 발원하는 지식은 성경적인 지식관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성경적 지식관으로 교육하는 기독교교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 기독교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현재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해 본다.

2. 미래를 위한 과거에서 현대까지의 기독교교육의 비판적 성찰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2050 보고서는 지금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한 이유를 과거의 잘못을 끊어내는 것에만 있지 않다고 한다. 그것은 21세기의 절반인 2050년을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함께 그려보는 미래교육의 모습이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와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신기술의 등장으로 기본권으로서의 교육의 보급이 많은 진전을 이루었음을 말한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에는 불평등과 배제가 남아있고, 교육과 지식 그리고 학습에 대한 낡은 사고방식이 바람직한 미래를 향한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성찰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독교교육은 어떠한가? 미래 교육을 위해 과거로부터 현대까지의 기독교교육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선교 초기 기독교는 세상 교육과 문화를 주도했고, 시대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한국 기독교는 1919년 3.1 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그 후 1960년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 기여했다. 여기에는 교회의 부흥 운동, 성령운동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민족복음화 운동의 열정은 교회로 하여금 직접적 정치참여보다는 경제개발을 통한 민족의 증흥과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갖게 했다. 또한 한국기독교학생회 총연맹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선한 세력과 협동하여 사회개발운동에 참여했다(이원규, 1989, 207-208). 민주화 운동은 YMCA, YWCA, 기독교청년협의회(EYC), 기독교교수협의회, 도시산업선교회를 중심으로 1990년대에 성숙단계로 이르렀다. 특히 도시산업선교회의 산업선교는 산업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선교라고 주장하며, 성경적 가치의 차원에서 근로자의 기본권 회복을 위해 활동했다. 산업선교 인들은 작은 예수라고 불리며, 소외되고, 고통받고, 억압받는 약자들을 돌보신 예수님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근로자 편에서 근로자들의 고통을 대변하였고, 공단지역의 교회들은 목회적 차원에서 노사간의 화해와 이해를 증진하며 전도했다(이장식, 1988, 263-264).

1995년 한국 개신교인 8,760,336명이며, 교회는 58,046개교로 개신교는 대표적인 한국의 주류 종교가 되었다(문화체육부, 1997). 당시 한국교회는 사회봉사적인 책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주류 종교로서의 사회적 공신력 회복을 위해 내부 개혁과 지역사회를 섬겨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많아졌고 그 결과로 모범적인 교회 봉사활동 모델이 나타나기도 했다(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280-281).

1980년대에 한국 기독교의 문화 운동은 민중의식화, 복음주의적 문화운동으로 진행되었다. 민중의식화 문화운동은 개인의 영적 구원보다는 사회 부조리에 대한 변혁과 민중 공동체형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복음주의 문화운동은 사회적 참여보다는 개인의 변화와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 민중의식화 문화운동은 민중의 한과 사상이 담긴 전통 탈춤과 판소리 등을 연구하고, 실연하면서 지배체제를 비판하는 민중의식을 활성화시키려 했다(김영한, 1992, 373-375).

신학적 관점에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 받은 공동체이다. 웨스트호프(J. H. Westerhoff, 2000)는 교회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 받은 대행인들(agents)의 모임으로 정의한다. 파울러(J. W. Fowler, 1996)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프락시스(praxis)의 참여자로서 세상을 계속적으로 창조하고, 자유롭게 하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움 받아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다. 과거 한국의 기독교는 계몽운동, 한글운동, 야학운동, 농촌계몽운동, 금주운동 등을 벌이면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에 크게 공헌 했고 그러한 공헌들은 복음 전파의 토대를 형성했다(이원규, 2010, 97). 티리히(P. Tillich)는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라고 했다. 이것은 종교라는 것이 인간이 자기 초월적인 문화의 깊이와 높이를 갈망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김경재, 1998, 27). 기독교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기독교가 사회에 유입되면서 많은 혜택과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현대 기독교는 정의와 사회개혁을 위한 기독교 본연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본연의 역할을 잃어버린 문제의 근원을 기독교교육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교육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김보람, 2022.03.30).

기독교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 기독교교육의 발생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공식적인 기독교교육 공동체는 신앙교육의 현장인 교회에서 형성되었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기 시작했다. 1905년 조선 선교연합공의회가 조직되었고, 한국최초의 주일학교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것은 다시 1922년 조선 주일학교 연합회로 출범했다. 하지만 1928년부터 교파를 중심으로 주일학교연합회가 각기 분리 설립되었다. 일제 강점기 후인 1948년 다시 조선주일학교연합회를 재건했고, 현재 대한 기독교교육협회(Korean Council of Christian Education, KCCE)로 개칭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엄요섭, 1959, 25). 한국의 기독교교육은 시대마다 그 시대정신을 반영하며 발전해왔다. 60년대 이후 한국 교회는 정치 민주화와 산업화 물결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한 복음과 진리를 따르는 것이 그 시대 기독교인의 소명이라고 믿고 가르쳐 왔다. 7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교육이 중요해지면서 한국에서 기독교 진리를 가르치는 기독교교육에 관한 경험과 이론들을 통합하는 지적인 작업들을 했다. 기독교교육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따른 삶을 영위하며, 그 믿음과 삶을 다음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해 신앙공동체를 필요로 했다. 따라서 현대에 와서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기독교교육은 최근 위기를 말하고 있다. 기독교교육의 위기는 주일학교(교회교육)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주일학교의 ‘위기’가 회자되기 시작한 시점은 1970년대이며, 미국의 기독

교교육학자 웨스터호프(J. Westerhoff III)에 의해서였다. 웨스터호프는 교회교육의 위기의 근원이 지식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교육-교수형 패러다임’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대안으로 신앙공동체-문화화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Westerhoff III, 1985. 31-52). 마리아 해리스(M. Harris)도 웨스터호프와 같이 교회교육의 학교교육적인 패러다임을 비판했다. 해리스는 교회교육 위기의 원인이 전통적으로 교육의 대상이 학령기로 특정한 학교교육과 동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대안으로 교회 공동체의 전연령대의 삶 자체가 교육이며, 사도행전의 초기교회 5대 기능 - 케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레이투르기아 - 을 통해 총체적으로 교육할 것을 주장하였다(Harris, 1997, 47). 은준관은 기독교교육이라는 교회교육의 신앙공동체적 행위를 ‘기독교교육학’이라는 학문적 이데올로기로 접근해 온 방법론적 오류를 지적했다. 이것은 기독교교육학이라는 학문적 이론이 발전 할수록 교회라는 교육현장이 소멸하는 역설적 현상에 대한 것이다(김진영, 2010). 박상진(2009)은 기독교교육의 현장인 교회학교의 위기를 학생 수의 격감이라는 양적인 현상뿐 아니라, 무기력한 교육이라는 질적인 현상도 지적했다.

기독교교육의 위기는 국가 발전에 따라 삶의 양상이 변화함으로 청소년의 삶에 대한 태도와 성향이 변화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성장과 발전은 청소년들이 여가 생활과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1980-1990년대 청소년들은 공부를 통해 추구하는 목적이 가족과 국가나 사회를 위해 봉사하거나 명예를 얻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도록 배웠다. 하지만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되고, 사회문화적으로 시대정신이 변화되면서 취미를 위한 생활, 즐거움을 추구하는 생활, 부자가 되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다(한미라, 2011). 이러한 현상은 다원주의와 해체주의로 특징되는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아동과 성인의 전환기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혼란과 분열을 가중시키고 있다(우지연, 2018).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일반교육과 기독교교육에서 유사한 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문제이며 또한 혼란스러운 포스트모던 시대정신에 따른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기의 중심에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문화 속에서 사고하고 삶을 영위하면서도 여전히 근대주의적인 ‘학교교육-교수형 패러다임’을 따르는 지식중심의 교육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유네스코 미래교육 2050’ 보고서는 인간 각자의 존엄성과 기본권, 지구의 건강, 기술혁신 이 모든 것이 위협에 처해 있으며, 이 위협에 대한 대안적 미래는 인간 서로와의 관계, 살아있는 지구와의 관계, 그리고 기술과의 관계에서 시급히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를 위해 교육의 새판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를 위한 교육의 새판으로 살롬을 위한 교육을 제안한다. 살롬은 하나님, 인간 서로

의 관계, 피조세계와의 관계, 그리고 기술과의 관계에서 평화, 정의, 질서,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상호간의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IV. 미래를 위한 교육 새 판짜기 : 살롬을 위한 교육

유네스코 미래교육 2050 보고서의 2부 ‘교육의 혁신’에서는 새로운 교육학(pedagogy), 새로운 교육과정 접근방식, 교사들에 대한 새로운 책임의 교수활동(teaching), 등이 필요함을 촉구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은 우리가 함께 하는 세계 안에서, 그리고 세계와 함께 학습하고, 이 세계를 향상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학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양심에 대한 권리와 자유롭고 지속적인 배움을 요청하며, 인간중심주의(human exceptionalism)와 개인주의에서 탈학습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한 교육학은 호혜와 돌봄의 윤리에 기반하여 개인과 집단과 지구의 종 사이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인류가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과 우리 개개인이 지구와 서로 결합된 시스템적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유네스코 2022). 이 보고서의 교육에 대한 지향은 기독교교육학에서 지향하는 것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들이 있다. 기독교교육학은 가치중립적인 객관적 사실과 실제 교육을 추구했던 공교육을 위한 교육학에서 배제되었던 교육학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독교교육학은 새로운 교육학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교육학은 일반은총 영역에서 교육학의 인류문화학적, 사회학적, 역사적, 심리학적 관심을 성경에 토대를 두고 신학적으로 사고하는 하나님의 교육(Educatio Dei)을 지향한다(김도일, 2018). 그러므로 기독교교육학은 우리 서로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피조세계(지구)를 위해 수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살롬의 가치를 지향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디지털 혁명, 생명공학, 신경과학의 발전으로 특징되는 기술 혁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학습자에게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신뢰감 있는 학습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삶의 현장에서 올바르게 해석,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은 기독교교육에서 교사의 책임이며 사명이다. 기독교교육학은 하나님, 이웃(우리 서로), 자연(피조세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과 존엄을 인정하고 향상시키며, 기술과의 관계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모든 관계 안에서의 살롬의 가치를 추구한다.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리고 타인, 동물, 식물 및 모든 물질세계와의 교제 속에서 존엄과 기쁨 그리고 베풀어 사랑으로의 부름이다(Brummelen, 2006, 96). 그렇다면 성경적인 살롬은 무엇이며, 살롬을 위한 교육의 기본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살롬을 위한 교육은 어떤 철학적인 기초와 구조를 가지는가?

1. 살롬(shalom)에 대한 이해

살롬(Shalom, שָׁלוֹם)이란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 누렸던 에덴동산에서의 하나님과 아담(인류)과 피조세계(자연)와의 관계에서 온전한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주의 신앙은 모든 것들이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모든 것들이 타락했고, 그래서 모든 것들에게 구속이 필요함을 말한다. 구속은 영혼뿐 아니라 육체도 구원이 필요하다.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구속이 필요하다면 사람의 개인적인 활동에 속한 사회체제들과 경제구조들 역시 구원이 필요하다. 그것은 경영과 노동과 같은 시스템, 건강관리 시스템 등이 공정과 평화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 또한 구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인종, 성별, 계급, 계층, 부부, 교사와 학생, 등 갈등과 반목에 의한 고통이 있다면 구속이 필요하다. 마땅히 화목해야 할 관계들이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에 있으므로 관계 속에서의 고통은 존재한다. 여기에는 모든 자연 세계를 포함한다.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처음 선하게 창조된 것과는 다르게 죄로 인해 고통 속에 있다. 그러므로 이 세계 전체는 살롬이 가져다주는 구속이 필요한 것이다(김병국, 2004).

월터스토프(N. P. Wolterstorff)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궁극적인 소명이 있고, 그것을 살롬이라고 말한다. 살롬은 우주적인 번영, 온전함, 기쁨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 이웃, 자연, 자기 자신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평화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살롬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맺는 모든 관계성에 그 초점이 있다.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 정의이며, 이 정의는 살롬의 기반이 되며, 살롬의 필수조건이 된다. 정의가 없는 곳에는 살롬이 존재할 수 없다(Wolterstorff, 2007).

월터스토프는 성경이 정의에 관한 책이라 말한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정의는 성경의 핵심주제이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오랜 기독교 전통에서 학자들의 글과 오늘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인식하는 정의의 내용과는 다르다. 그들은 정의를 주로 사법제도와 관계된 것으로 올바른 판결과 관련된 핵심으로 본다(Wolterstorff, 2006).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기초적 정의(primary justice)로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정의는 인간의 권리와 관계되며, 그 권리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는 생계유지의 권리이다. 가난에 대한 관심은 자선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인 것이다(Wolterstorff, 2007, 169). 정의에서 한 사람의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의무와 책임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음과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지니고 있다. 첫째, 누구라도 타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유익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둘째, 타인이 그 유익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셋째, 빼앗는 일이 일어날 경우 그 빼앗긴 자를 도와야 한다(Wolterstorff, 2007, 174). 살롬은 정의를 포함하지만 정의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살림의 중심에는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은 하나님, 이웃, 자연, 자기 자신과의 화목한 관계에서 오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에서 기쁨이 있다는 것은 살림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에서 살림을 말할 때 그 공동체는 정의와 기쁨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다. 또한 살림의 비전을 말할 때 문화적 사명과 기쁨으로의 부르심이 있다. 문화적 사명은 정의와 관련된 해방과 권리에 대한 문화개발이며, 기쁨으로의 부르심은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인 것이다. 따라서 살림을 위한 교육을 말할 때, 그것은 정의와 기쁨을 위한 교육이 되는 것이다(Wolterstorff, 2002, 256).

2. 살림을 위한 교육의 기본 원리

살림을 위한 교육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림을 경험하고 그 살림을 우리 자신과 우리 서로와의 관계, 지구와의 관계, 기술과의 관계 속으로 확장시킴으로서 상호간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살림을 경험하는 것은 다음 다섯 가지 관계적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첫째,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기쁨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기쁨으로 확장된다. 둘째, 우리 서로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바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며 누리는 기쁨이 공동체로 확장된다. 셋째, 피조세계인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기쁨으로 인류와 피조세계가 서로 의존하며 맛보는 기쁨이다. 넷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한 인권을 존중받고, 권리를 어디서나 보장받고 살아가며 누리는 기쁨으로 타인과 사회와 국가로 확장시키는 기쁨이다. 다섯째, 기술혁신에 따른 것에서 소외·배제되거나 불이익과 불평등을 받지 않고, 공평한 사용과 혜택을 누리는 기쁨으로 디지털세상 속으로도 확산되는 기쁨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 - 하나님, 우리 서로(이웃), 피조세계(자연), 자기 자신, 그리고 기술혁신 - 차원에서 살림을 경험하고, 확장시킴으로써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살림을 위한 교육의 기본 원리이다.

코메니우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인간(정신과 문화), 자연(피조물)의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섬기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한다(서미경, 2021). 그는 교육에서 하나님과 인간(정신과 문화)과 자연(피조물)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인간(정신과 문화)은 나와 너의 관계와 우리 삶을 형성하는 정신적인 활동과 더불어 사회, 정치, 경제, 과학기술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책을 주셨는데, 그것은 성경, 인간 문화, 자연이다. 이 세 가지 책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교육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교육이라 할 수 없다. 파머는 교육을 통해 진리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리공동체는 하나님과 인간(정신과 문화)과 자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전적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앎과 가르침과 배움이 일치하는 교육 공동체를 말한다. 코메

니우스의 온전한 교육과 파머의 진리공동체는 모두 총체적 세계 안에서의 총체적 지식 교육을 의미한다(서미경, 2021). 총체적 세계는 종교(신학), 문학, 인문학, 윤리, 철학, 자연과학, 수학, 순수예술 등 여러 가지 지식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Hirst, 1965). 이러한 지식의 형식에는 종교(신학)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은 인간의 삶과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마음계발에 필수적인 것이다. 종교의 신학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총체적 지식 교육은 성경을 다른 교과목과 함께 가르치는 것이며 총체적 세계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근대부터 학교교육은 순수 객관적인 사실과 실체를 다룬다는 명목으로 가치중립을 주장하며 하나님과 성경을 배제시켜 왔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교육을 통해 총체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없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교육적 위기의 근원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살롬을 위한 교육은 총체적 세계 이해를 위한 총체적 지식의 형식으로 구성되며 다른 교과목과 함께 성경이 포함된다.

살롬을 위한 교육에는 애통이 있다. 이 세계는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역사적으로 의료, 과학기술, 교육, 인권운동 등을 통해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억압, 불평등, 인권유린 등과 같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죄로 인해 왜곡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온전히 살롬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기독교가 공적인 삶의 영역으로부터 개인적인 영역으로 밀려났다. 또한 다양한 종교가 유입되면서 종교집단들은 서로 경쟁하며 일한다는 인식을 하게 했고, 공동체적인 삶에서 공유된 종교적인 확신이 약해지면서 종교는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되었다. 종교의 다양성은 공동체적 삶에서 종교의 확신에 근거한 정도가 약해졌고 종교의 빈자리는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사회 내부에서 채워지기 시작했다(Wolterstorff, 2014, 196-203). 그리고 자본주의에 의한 계약 윤리가 인간관계의 기본 윤리가 되어 경쟁, 소비주의, 물질주의를 조장하고 민족, 국가, 사회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로 인한 불평등, 폭력, 인권유린 등과 같은 문제들을 우리는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애통해 하는가? 월터스토프는 하나님은 고통 받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며 스스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말한다(Wolterstorff, 2003, 137). 우리 인간의 죄와 타락과 그로 인한 고통은 하나님께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을 예수님께 대신 지게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통당하셨다. 따라서 살롬을 위한 교육에는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불평등, 폭력, 인권유린, 질병, 죽음, 불의, 가난 등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는 애통이 있다(강영택, 2008). 그것은 살롬이 없는 이 세상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게 한다.

살롬을 위한 교육은 자신의 주변에서부터 불의의 상황들과 그로 인하여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고, 자기가 가진 은사와 역량 안에서 그들을 도와야 할

책임과 의무를 깨닫고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간의 상처에 적절히 반응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불의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열정을 추구한다. 이것은 바로 살롬의 성경적인 개념과 같은 것으로 정의는 살롬을 요구한다(Wolterstorff, 2014, 193-194). 살롬의 기반이 되는 정의를 교육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국가, 그리고 지구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지구의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이고,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모두의 살롬을 위해 우리는 정의로워야 한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 불의에 상처 받고 있는 공존의 존재들을 위해 우리는 투쟁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살롬을 위한 교육의 기본 원리는 다섯 가지 관계적 차원 - 하나님, 우리 서로(이웃), 피조세계(자연), 자기 자신, 기술혁신 - 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살롬을 위한 교육은 총체적 세계 이해를 위한 총체적 지식의 형식으로 다른 교과목과 함께 성경을 포함한다. 살롬을 위한 교육은 살롬이 없는 세상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정의를 추구하고 불의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열정과 실천을 추구한다.

3. 살롬을 위한 교육의 철학적 기초

교육에서 철학적 기초는 교육의 방향성과 토대를 말해준다. 살롬을 위한 교육의 철학적 기초는 성경적인 교육과 가치관, 지식관, 인간관이다.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과 가치관

토마스 락코나(T. Lickona)는 한 사회가 생존, 번영하기 위해 정의, 정직, 신뢰성, 민주적 절차, 진리에 대한 순종 등과 같은 기본적인 가치들이 필요함을 말한다. 또한 그는 학교교육은 반드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에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을 주장한다. “우리는 어떻게 더불어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자연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그는 잘 규정된 가치들의 토대 위에 세우지 못한 학교교육은 학생들이 원칙을 배우고 사랑하며 사회에 이바지하는 구성원이 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Lickona, 1991, 20-21). 이러한 락코나의 주장은 ‘UNESCO 미래의 교육 2050’ 보고서에서 논한 오늘날 학교교육의 현실을 반영한다.

교육에서 내재된 가치들은 특정한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살롬을 위한 교육은 성경적 가치에 그 뿌리를 둔다. 성경적 가치는 창조명령, 대명령, 대위임령 속에 근원한다(Brummelen, 2006, 63-75). 창조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윤리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

적, 심미적인 삶을 위해 지침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 지침을 따라 물질적인 선물을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다.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5절 말씀은 창조명령 또는 문화명령이라 불린다. 이 명령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창조세계를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유익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명령은 책임있는 청지기 정신을 강조한다. 대명령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이타적인 사랑과 그로 인한 섬김을 가치 있게 여긴다. 이 명령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모든 인격적인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것을 자신의 은사와 역량을 사용하여 증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대위임령은 의와 공평에 기초한 인격적, 공동체적 제자도와 관련된 것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의미를 이야기할 것과 동시에 그 요구를 따라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제자도는 사적인 영역뿐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고, 이에 반하는 사회구조들에 대항하여 도전한다.

2) 교육과 지식관

구약성경에서 사용된 **얌**(יָדַע)라는 단어의 의미는 실제적인 경험으로 능동이며 의도적인 참여를 가리킨다(Groome, 1980, 141). 지식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헌신한 바에 따라 실천하며 살아낼 때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지식은 지성과 마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성경적 지식관에서 **얌**, 사랑, 존재, 행동은 모두 함께 묶인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실천적인 것으로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불의, 불평등, 가난, 궁핍, 억압, 소외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것이다(렘 22:15-16). 학교교육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단지 머리로만 지성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 그리고 공감의 마음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성경적인 지식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행동하도록 이끌어 주며 성경적인 규범과 가치를 실천하도록 인도한다. 성경에서 지식은 관계적이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서부터 참된 지식으로의 **얌**이 시작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식의 해석과 사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물질세계에 대한 참된 지식은 창조주를 아는 것과 분리 될 수 없다. 과학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지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응답할 것을 고취한다. 하지만 죄는 모든 삶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지식의 소유와 적용에 영향을 미친다. 현대 사회는 지식을 사용하여 물질세계, 식물과 동물, 자원 그리고 인간 삶에 이르기까지 통제한다. 이러한 지배욕이 지식의 추구를 주도할 때, 지식의 활용에 대한 윤리적인 기초와 올바른 사용에 대한 욕구는 실종될 것이다(Palmer, 1983, 8). 인간이 기술적인 지식을 사용하여 단기적인 유익을 위해 장지적인 고통과 재난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세계는 현재적 위기를 통해 자주 목격하고 있다. 따라서 살롬을 위한 교육에서는 성경적 지식관이 중요하다. 성경적인 지식은 결코 외부

에 있거나 객관적이지 않다. 지식과 분별력 그리고 지혜는 연합을 이룬다. 분별력은 지식을 추구하며, 지식은 분별함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지식과 선한 판단은 하나가 된다. 그리고 명철과 지식은 지혜를 동반하며, 정의와 공평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Brummelen, 2006,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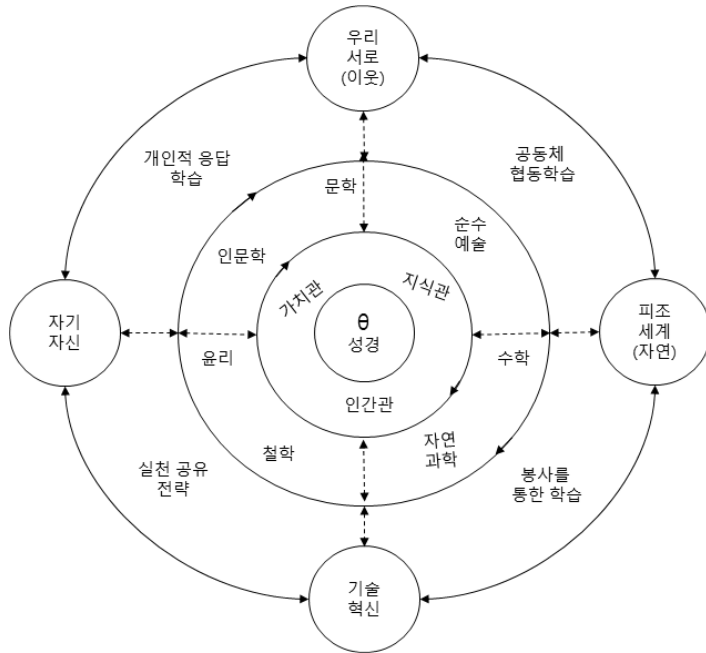
3) 교육과 인간관

성경적 인간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 본유적인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아야 함을 말한다. 성경적인 인간관은 교실상황에서 학습과 교수법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사회로 확장되어 간다. 학습은 마음과 감정과 지성이 포함된 것으로 인간관과 지식관과 결부되어 효과적인 학습상황을 만든다. 학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존재한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혁된 관계성은 학생들에게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연에 대한 사랑의 섬김과 헌신의 삶을 실천하도록 이끈다. 학생들의 마음에 헌신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든, 반대로 물질주의, 소비주의, 쾌락주의 등 다른 우상에 대한 것이든지 그들의 학습과 태도,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사는 성경적 인간관에 따른 인격적인 본보기와 계획된 학습경험을 통해 올바른 헌신 증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의 본유적인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학습상황과 교수법을 통해 보여준다면, 그들 상호간의 존중과 가치를 증진하고 확장시킬 수 있다(Brummelen, 2006, 129-131). 이러한 교사의 실천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에 대한 의무를 사랑으로 책임감 있게 응답하며 완수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은 하나님을 형상화할 것이고, 그들이 배운 존중과 가치는 그들이 속한 사회로 확장될 것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독특한 은사를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모든 사람은 개개인이 특별하며, 각자 다른 다양한 장점과 은사 그리고 재능을 가진 존재로서 지음 받았고, 그것을 펼치며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여 자신과 이웃 그리고 자연 세계의 행복에 이바지 할 수 있으며,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교육에서 교실상황과 교수법에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사는 다양한 교수활동을 계획하여 학생들이 은사와 재능을 고유한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격려해야 한다(Brummelen, 1998, 96-100).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앎의 방식을 통해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도록 의미있는 학습을 만들어야 한다. 의미있는 학습은 내용 전달과 기능 숙달의 차원을 넘어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계발함으로써 이 세계의 살림을 위해 응답하도록 돕는다.

4. 살림을 위한 교육모형

살림을 위한 교육모형은 다음 두 가지를 구현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다섯 가지 관계적 차원 - 하나님, 우리 서로(이웃), 피조세계(자연), 자기 자신, 기술혁신 - 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살림을 위한 교육은 총체적 세계 이해를 위한 총체적 지식의 형식으로 다른 교과목과 함께 성경이 포함되며, 성경은 중심적 역할을 한다. 살림을 위한 교육에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정의를 추구하고 불의에 대항하는 열정과 실천을 촉구한다. 이것은 인간 각자의 존엄성과 기본권,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의 생존이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 이 위협한 경로를 바꾸기 위해 대안적 미래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둘째, 살림을 위한 교육모형은 성경적 가치관, 지식관, 인간관을 반영하는 학습전략들을 통합한다. 학습전략을 통해 학생들이 구체적인 교육의 장면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고, 성경적 지식관, 인간관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인류와 지구를 위해 번영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숙고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함께 그려내는 미래의 삶이 실현되도록 공동으로 협력하여 세상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할 수 있게 한다(유네스코, 2022).



[그림 1] 살림을 위한 교육모형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살림을 위한 교육모형으로 구성하면 [그림 1]과 같다. 이 모형은 중앙의 원에 성경이 위치해 있고, 두 번째 원에 가치관, 지식관, 인간관이 위치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에 지식의 형식에 해당하는 대표 교과목들이 위치해 있으며, 네 번째 원에는 학습전략들이 있다. 바깥쪽의 네 개의 작은 원에는 중앙에 위치한 첫 번째 차원을 제외한 네 가지 관계적 차원이 위치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성경을 통해 가치관, 지식관, 인간관을 형성하고, 이를 반영하는 지식의 형식과 다섯 가지 관계적 차원이 있고, 차원들의 균형 유지를 위한 학습전략들이 분포해 있다. 이 모형은 각각의 차원과 교육의 철학적 기초(가치관, 지식관, 인간관), 지식의 형식(교과목들), 학습전략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살림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구조를 가진다. 학습전략들에 대한 설명은 아래 5번과 같다.

5. 살림을 위한 교육의 학습전략

1) 개인적 응답 학습

성경적 가치관과 지식관은 개인적인 응답을 요구한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지식관은 학생 자신의 존재에 대한 존중과 존엄을 말하고, 고유한 은사와 재능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자신과 이웃과 피조세계를 위해 이바지 할 수 있음을 가르쳐준다. 따라서 학생들은 스스로 개인적인 선택을 하고 개인적인 가치와 헌신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생각, 기능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학습한 내용을 확장하고 응답한다. 학생들의 의미 있는 응답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학생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들의 필요와 이해를 돕고, 정직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예수님은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지 않으시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교육은 강요나 조작이 아니라 영향력을 주는 것이었다. 둘째, 학생들이 학습한 것을 자신의 경험과 삶에 연관시키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학습과 응용상황에서 자유롭게 비판적,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한다 (Brummelen, 2006, 147). 이러한 가르침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동일한 은혜로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를 위해 모범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응답을 통한 학습에서 교사의 인격과 태도가 학생들의 선택과 가치와 헌신의 모델링이 된다.

2) 공동체 협동학습

협동학습은 성경적 인간관에 따른 교육 실천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다. 협동학습은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교수전략의 한 실례이다. 성경은 인

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하나님과 우리 서로(이웃) 그리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동산인 피조세계를 위해 봉사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태도이며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근원적으로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이다. 따라서 협동은 구속과 치유 그리고 화해의 활동들과 관련된다. 이러한 협동학습은 공동체를 위한 섬김의 기술인 존중, 섬김, 나눔, 격려, 인내심 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Dyk, 2003, 171-172). 협동학습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우리 서로와 자연을 위해 은사와 재능 그리고 자원을 사용하고 나눠야 하는가? 그 사용과 나눔을 위해 공동체에서 어떻게 서로를 돌보아야 하는가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 협동학습과 전체 활동은 학교가 양육하는 공동체가 되는데 기여하며, 지역사회로 확장될 수 있게 한다. 학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학생들이 학교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존재로 부르셨는가를 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3) 봉사를 통한 학습

봉사를 통한 학습은 성경적 인간관과 가치관 그리고 지식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값진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봉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운 지식을 적용함으로써 응답한다. 봉사활동의 기회는 의사소통 스킬, 리더십, 문제해결력, 등을 개발할 수 있다. 지식학습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를 실행할 수 있다(Diamond, 1993; Willis, 1993). 효과적인 봉사학습을 위해 준비, 실행, 반성, 축하의 네 단계로 구성하고 학생들이 봉사 경험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한다. 봉사는 학생들이 미래적으로 처하게 될 상황들을 조사하고, 우리 사회가 관련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지 토론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의, 동정심, 성실 등을 증진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게 한다. 여기서 학생들은 미래에 처하게 될 상황들을 인지하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실천할 수 있다. 봉사를 통한 학습 사례는 정치적 결정이나 행동에 따라 지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유해 폐기물 조사 및 홍보, 재활용 프로젝트, 지구온난화 피해 조사 및 대응, 요양원 자원봉사, 장애인 시설 체험 및 봉사 등이 있을 수 있다. 봉사를 통해 학생들은 인간에 대한 존엄과 가치, 지구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전지구적 위기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4) 실천 공유 전략(의도된 학습 전략)

성경적인 지식관은 능동적인 참여와 응답을 포함한다. 성경적 지식관을 토대로 하는 교수법이 실천 공유 전략이다. 실천 공유 전략은 이론과 실천을 융합하기 위한 것이다. 교사와

학생들이 구조화된 토론을 통해 통찰과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점검하고 쌓으면서, 바른 지식에 도달하고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토마스 그룹은 이 전략을 주로 교회 교육의 맥락에서 사용하였다(Groome, 1980). 이 방법은 학생의 경험에 관한 대화에서부터 시작하여 학습 내용을 자신의 미래의 삶까지 통합하게 한다. 또한 학생들이 새로운 학습에 자신의 이전 지식과 경험을 접목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이 갖는 의미를 점검하고, 실천하도록 격려 받을 때 가장 잘 학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지식, 느낌, 신념, 헌신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을 허용하고 격려한다. 실천 공유 전략 활동은 나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으로,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로 확장되고 전환된다(Dyk, 2003, 252-260). 이러한 활동은 학생과 교사의 생활이 밀접하게 연관된다.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가 나에게서 너로, 우리 서로와 지구 공동체로, 그리고 기술혁신에 따른 것에까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실천 공유 전략은 기술혁신의 문제가 미치는 영향과 올바른 선택과 사용을 위한 학습에도 활용될 수 있다.

V. 나가는 말

에텐동산에서의 샬롬은 기독교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오래된 미래라 할 수 있다. ‘UNESCO 미래교육 2050’ 보고서는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과 기본권, 지구의 건강, 이 모든 것이 위협에 처해 있으며, 이 위협에 대한 대안적 미래는 인간 서로와의 관계, 살아있는 지구와의 관계, 그리고 기술과의 관계에서 시급히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간 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의 생존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는 ‘UNESCO 교육의 미래 2050’에 대한 소고로서 전지구적인 위기 상황에서 교육의 미래를 위해 성경적인 샬롬을 위한 교육을 주장하였다. 샬롬을 위한 교육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샬롬을 경험하고 그 샬롬을 우리 자신과 우리 서로와의 관계, 지구와의 관계, 기술혁신과의 관계 속으로 확장시킴으로써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를 본 연구는 샬롬을 경험하는 다섯 가지 관계적 차원으로 제시하고 샬롬을 위한 교육의 모형을 개발하였다. 샬롬을 위한 교육모형은 성경적 가치관, 지식관, 인간관을 교육의 철학적 기초로 하여, 총체적 지식의 형식에 해당하는 교과목들과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학습전략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다섯 가지 차원이 균형을 이루며 샬롬을 성취한다. 즉, 샬롬을 위한 교육모형은 성경을 통해 가치관, 지식관, 인간관을 형성하고, 이를 반영하는 지식의 형식과 다섯 가지 관계적 차원의 균형 유지를 위한 학습전략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샬롬을 이루는 구조를 가진

다.

살롬을 위한 교육은 학습자들이 기독교적인 존재방식으로 나아가도록 구비하고 다음과 같은 열정과 활력을 불어넣는다(Wolterstorff, 2014, 208-211). 첫째, 학습자에게 성경에 근거한 비판적인 사회참여를 이끌어 낸다. 둘째, 대안적인 사고와 삶의 방식으로 인도하고 그것을 추구하도록 열정과 활력을 제공한다. 셋째, 전지구적으로 정의를 위한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이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생겨난 우리는 공동의 인류로서 전지구적인 정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공동의 살롬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먼저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교육적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살롬을 위한 교육은 미래를 위한 교육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교육의 개혁과 변화를 위한 소망이 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명희, 김혜선, 이정민 (2011). 웹 기반 과학실험 시뮬레이션의 학습성과에 대한 학습몰입과 인지적실재감의 예측력 규명.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7(1), 39-61.
- [Kang, M. H., Kim H. S., & Lee. J. M., (2011). The Effects of Flow and Cognitive Presence on Learning Outcomes in a Middle School Science Class using Web-based Simulatio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17(1), 39-61]
- 강문규 (2018). 현대 한국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의 기독교교육. **신학과 실천**, 59, 537-565.
- [Kang, M. K. (2018). Die Probleme der heutigen koreanischen Erziehung und die christliche Ausbildung als der Antrag. *Theology and praxis*, 59, 537-565.]
- 강영택. (2008). 샬롬을 위한 기독교교육 :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Nicholas Wolterstorff)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17, 193-218.
- [Kang, Y. T. (2008). Christian Education for Shalom - Study on Nicholas Wolterstorffs Educational Thoughts -. *KSCRE*, 17, 193-218]
- 김경재 (1998). 종교의 본질 ; 그리스도교와 문화. 오산: 한신대학교 신학부
- [Kim, G. J. (1998). The nature of religion; Christianity and culture. Osan: Hanshin University, Department of Theology]
- 김도일. (2018). 미래 가치, 융합의 가치를 지향하는 기독교교육. **교회교육**, 471(0), 10-17.
- [Kim, D. I. (2018). Christian education aimed at future values and convergence values. *educational church*, 471(0), 10-17.]
- 김병국. (2004). 샬롬을 위한 교육. **백석저널**, 6(1), 53-72.
- [Kim, B. G. (2004). Education for Shalom, *Baekseok Christian Society*, 6(1), 53-72.]
- 김보람 (2022.03.30). 교육의 미래, 바로 지금 우리의 고민. 유네스코뉴스. https://www.unesco.or.kr/data/unesco_news/view/790/1387/page/0. 2023.10.07. 접근.
- [Kim B. R. (2022.03.30). The future of education is our concern right now. UNESCO News. https://www.unesco.or.kr/data/unesco_news/view/790/1387/page/0. approach. 2023.10.07.]
- 김영한 (1992). **한국기독교 문화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 [Kim, Y. H. (1992). *Korean Christian Cultural Theology*. Seoul: Seonggwang Culture Company.]
- 김진영 (2010, 4, 5). 은준관 박사가 범했던 두 가지 치명적 오류. 크리스찬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07797>. 2023.10.08. 접근.
- [Kim, J. Y. (2010, 4, 5). Two fatal errors made by Dr. Eun Jun-kwan. Christian Today.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07797>. approach. 2023.10.08.]
- 문화체육부 (1997). 한국의 종교현황. 문화체육부.
-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1997). Current status of religion in Korea.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 박상진. (2009). 한국 교회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 교회, 가정, 학교의 연계를 통한 기독교교육 -. **기독교교육 논총**, 20, 53-83.
- [Park, S. J. (2009). A New Paradigm of Christian Education for Solving the Problem of the Crisis of Church Education in Korea: Connecting Church, Family, and School. *KSCRE*, 20, 53-83.]
- 서미경 (2021). 코메니우스(Comenius)와 파머(Palmer)의 기독교교육사상 비교: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신앙운동을 중심으로. **생명과학**, 29(1), 107-152.

- [Seo, M. K. (2021). A Comparative Study on the Thoughts of Christian Education between Comenius and Palmer: Focusing on A Movement of Faith in the Reformed Life Theology. *Life and Word* 29(1), 107-152.]
- 엄요섭 (1959). **한국기독교교육사 소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 [Eom, Y. S. (1959). *A review of the history of Korean Christian education*. Seoul: Korean Christian Education Association.]
- 이미션 (2023.03.20) [사설] “향후 10년이 수천년 영향” 긴박한 기후대응 IPCC 보고서.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84416.html>. 2023.11.17. 접근.
- [Lee M. S. (2023.03.20) [Editorial] “The next 10 years will have an impact on thousands of years” IPCC report on urgent climate response. The Hankyoreh Newspaper.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84416.html>. approach 2023.11.17.]
- 우지연. (2018). 고통과 열정을 통합하는 기독교 청소년교육. **기독교교육 논총**, 54, 85-120.
- [Woo, J. Y. (2018). Christian Youth Education for the Integration of Pain and Passion. *KSCRE*, 54, 85-120.]
- 유네스코 (2016). 다시 생각하는 교육: 교육은 전지구적 공동체를 향해 가고 있는가?.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UNESCO (2016), Rethinking education: Is education moving toward a global common good? Seoul: UNESCO Asia-Pacific Center for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 유네스코 (2022).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UNESCO (2022). Drawing our future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Seoul: UNESCO Asia-Pacific Center for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 이원규 (1989). **한국 개신교의 정치참여, 한국교회와 사회**. 서울: 나단.
- [Lee, W. G. (1989). *Political Participation of Korean Protestants, Korean Church and Society*. Seoul: Nathan.]
- 이원규 (2010).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 서울: 도서출판 kmc.
- [Lee, W. G. (2010). *The crisis and hope of the Korean church from the perspective of sociology of religion*. Seoul: kmc.]
- 이장식 (1988). 한국정치 현실과 교회. 한국기독교 문화진흥원 편, 교회와 국가 기독교와 문화 제1집.
- [Lee, J. S. (1988), Korean political reality and church. Korean Christian Culture Promotion Agency, Church and State, Christianity and Culture Vol. 1.]
- 장한섭, (2023.11.08.). 교육 문제와 미래 교육, 기독교대안교육에 길이 있습니다. 기독교연합신문,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4626>. 2023.11.17. 접근.
- [Jang, H. S. (2023.11.08.). There is a way through education issues, future education, and alternative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Union Newspaper.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4626>. approach 2023.11.17.]
- 전현곤. 학교교육의 근대적 주체형성 문제와 교육적 대안. **열린교육연구**, 17(2), 1-22.
- [Jeon, H. G. (2009). The Problems of Modern Subject Constitution of Schooling and The Educational Alternative Idea.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17(2), 1-22.]
- 정영은 (2016). 한국 기독교 학교의 교육이념에 대한 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기간행 석사학위논문.
- [Jeong, Y. E. (2016), A review of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Korean Christian schools. Unpublished

-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 진보교육연구소 교육과정연구모임 (2022), 대전환의 시대, 변혁의 교육학. 서울: 살림터.
- [Progressive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Curriculum Research Group (2022), Era of great transition, transformative pedagogy. Seoul: Salimteoo.]
- 조미영 (2020). 세계화 시대의 생태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기독교교육. **신학논단**, 101, 309-339.
- [Cho, M. Y. (2020). Christian Education to Cultivate Ecological Literac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eological Forum*, 101, 309-339.]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동연구원, 280-281.
- [Korea Population Health Research Institute (1987). A study on efficient management methods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East Research Institute, 280-281.]
- 한미라 (2011). 한국 청소년 가치관의 연구사적 고찰. **기독교교육정보**, 29, 99-144.
- [Hahn, M. R. (2011). An Historical Reflection of Previous Researches on the Youth Values in Korea.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29, 99-144.]
- Brummelen, H. V. (1998). *Walking with God in the classroom: Christian approaches to learning and teaching*. Alta Vista College Press.
- Brummelen, H. V. (2006). **기독교적 교육과정 디딤돌**. 이부형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original published 2002).
- [Brummelen, H. V. (2006). *Steppingstones to curriculum*. Trans B. H. Lee, Seoul: Christian Documentation Mission.]
- Common Worlds Research Collective (2020). Learning to become with the world: Education for future survival. Background paper for the Futures of Education initiative.
- Diamond, D. (1993). *How to develop volunteerism in students*. In tips for principals, Reston, VA: National Association of Secondary School Principals.
- Dyk, V. J. (2003). **가르침은 예술이다**. 김성수 역, 서울: IVP. (원저는 2000년 출판)
- [Dyk, V. J. (2003). *The Craft of Christian Teaching*. Trans S. S. Kim. Seoul: IVP.]
- Fowler, W. J. (1996). *Faithful change: the personal and public challenges of postmodern life*. Nashville: Abingdon Press.
- Groome, T. (1980).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an Francisco: Harper & Row.
- Harris, M. (1997). **회중 형성과 변형을 위한 교육목회 커리큘럼**.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원저는 1989년에 출판)
- [Harris, M. (1997). *Fashion me a people: Curriculum in the church*. Trans Y. S. Ko, Seoul: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Publishing.]
- Hirst, P. H. (1965). *Liberal education and the nature of knowledge*, In Philosophical Analysis and Education, ed Reginald Donat Archambault. London: RKP.
- Kang, Moon-Kyu. (2018). Die Probleme der heutigen korenschen Erziehung und die christliche Ausbildung als der Antrag. *Theology and Praxis*, 59, 537-565.
- Lickona, T. (1991). *Educating for character: How our schools can teach respect and responsibility*. New York: Bantam
- Palmer, J. P. (2008).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이종태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원저는 1993년에 출판)
- [Palmer, J. P. (2008). *To Know as We Are Known*. Trans. J. T. Lee, Seoul: IVP.]
- Palmer, P. (1983). *To know as we are know: A spirituality of education*. San Francisco : Harper &

Row.

- Desjardins, R., Torres, C. A., Wiksten, S. (2020). Social Contract Pedagogy: a dialogical and deliberative model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ackground paper for the Futures of Education initiative, 11~14.
- Westerhoff III, J. H. (1985). **교회의 신앙교육**. 정웅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원저는 1976년에 출판)
[Westerhoff III, J. H. (1983).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Trans. Y. S. Jeong, Seoul: Korean Christian Education Association.]
- Westerhoff, H. J. (2000).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Toronto: Anglican Book Centre.
- Willis, T. (1993). Growing up responsible. *Educational Leadership*, 51(3). 40-43.
- Wolterstorff, N. (2002). *Educating for life: Reflections on Christian teaching and learning*. Grand Rapids, MI: Baker.
- Wolterstorff, N. (2003).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박혜경 역, 서울: 좋은씨앗. (원저는 1987년에 출판)
[Wolterstorff, N. (2003). *Lament for a Son*. Trans. Y. K. Park, Seoul: Good Seed.]
- Wolterstorff, N. (2004). *Educating for shalom: Essays 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Grand Rapids, MI: Eerdmans.
- Wolterstorff, N. (2006). Teaching justly for justice. *The journal of Education and Christian Belief*, 10(2), 23-27.
- Wolterstorff, N. (2007).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출 때까지**. 홍병룡 역, 서울: IVP. (원저는 1983년 출판)
[Wolterstorff, N. (2007).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Trans. B. R. Hong, Seoul: IVP.]
- Wolterstorff, N. (2014). **샬롬을 위한 교육: 교육의 성경적 비전과 학문의 사회적 실천**. 신영순, 이민경, 이현민 역, 서울: SFC. (원저는 2004년에 출판).
[Wolterstorff, N. (2014). *Educating For Shalom: Essays 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Trans. Y. S. Sin, M. K. Lee, H. M. Lee, Seoul: SFC.]